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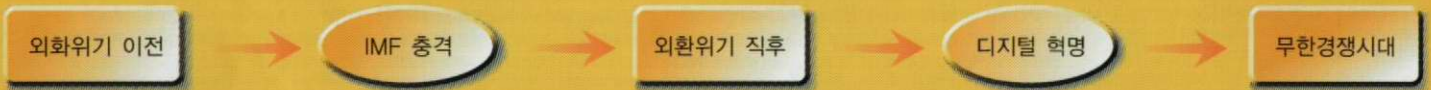
디지털 혁명과 생존전략(Survival Strategy)

디지털과 지식으로 무장한 '디제라티'로 거듭나야

정의석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연구원

통계청이 발표한 '10월 고용동향' 자료에 의하면 10월 국내 실업률은 2.6%, 총 실업자수는 60만5000명으로 조사됐다. 특히 20~30대의 청년 실업률은 계속 증가해 모두 40만9000명으로 전체 실업자의 67.6%나 차지하고 있어 그 심각성이 더하다. 더욱 심각한 것은 대졸 이상의 고학력 실업률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디지털혁명으로의 전환을 맞게 되었다. 디지털 혁명은 아톰(atoms)에서 비트(bits)로 변화하고 있다. 즉, 디지털 혁명은 컴퓨터와 IT 기술의 발달에서 시작됐고, 이 기술들에 의해서 꽃을 피우고 있는 것이다. 이런 변화는 더 나은 세상을 위해서는 '피할 수 없고 멈출 수도 없는 것'이다. 이런 패러다임의 변화는 매우 중요하다. 예를 들어, 디



1998년 IMF라는 미증유의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평생 직장 개념이 사라졌다. 스스로 실력을 키워 몸값을 올리지 않으면 살아남기 힘든 무한경쟁시대가 도래했다.

급격히 변화하는 시기를 혁명기 또는 과도기라고 한다면 21세기야말로 생존의 과도기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반도체 개발이 이룩한 디지털기술과 오픈 네트워크인 인터넷을 기반으로 지식정보사회를 열면서 서서히 학력이 파괴돼 이제는 “누가 어느 대학교를 나왔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가 어떠한 핵심 역량을 소유하고 있는냐”가 중요한 시대가 되었다. 이에 필자는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인재상과 21세기 무한경쟁시대의 생존전략에 대해 고민하고자 한다.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른 인재상

시대가 변함에 따라 뉴 테크놀로지가 나오고 이들 기술들에 의해 패러다임이 변화해 왔고 이에 따른 요구되는 인재상도 변모해 왔다.

19세기 산업혁명을 거치면서 농업사회에서 산업사회로 변모하기 시작했고, 굴뚝산업으로 대표되는 20세기에 들어와 아날로그 시대 시대의 꽃을 피웠다. 이 시대에서는 노동집약적 산업이 주를 이루면서 제조업이 크게 발달해 모든 노동자들은 자신의 노동력에 따라 가치를 인정받았다. 점차 기술이 발달하면서 아날로그 시대에서 디

지탈혁명에 소극적이었던 일본은 1990년대 들어 경제가 정체되고 미국과의 격차가 확대되기 시작하면서 장기 불황을 겪고 있다.

니혼게이샤이 신문 보도에 의하면 지금 일본의 청년무직자는 4년제 대졸자 11만9000명, 2년제 대졸자 2만5000명, 고졸자 13만8000명 등 모두 28만여 명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했다. 이는 대졸자의 5명중 1명꼴로, 고졸자의 10명중 1명 꼴로 직업 없이 놓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에 일본은 작금의 현상이 모두 디지털혁명에 부응하지 못해 일어난 것으로 판단해 최근 '디지털사회의 조기 실현'을 천명하고 나섰다. 물론 이런 변화를 반대하는 움직임들도 있었다.

19세기 영국에서 일어났던 러다이트(Luddite) 운동과 20세기 신 러다이트족(Neo-Luddites)이 그 예라고 볼 수 있다. '디지털이다(Being Digital)'의 저자인 네그로폰테(Negroponte)가 디지털은 별개의 객체라 아니라 바로 우리의 생활 그 자체라고 주장하듯이, 디지털은 우리의 사회와 삶에 급격한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디지털 사회에 접어들면서 과거 5000년간의 정보량 보다 지난 30년간의 정보량이 많으며, 매 4~5년마다 출판과 인쇄물이 2배씩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인터넷 정보는 매 3.5개월마다 2배씩 증가하고 있으며, 디지털 사회에서는 부가가치의 4분의 3이 정보와 지식으로부터 나온다고 한다. 또한 인터넷을 통해 24시간 365일 언제 어디서나 자유롭게 시간을 활용할 수 있다. 즉, 우리는 현재 인터넷으로 인

해 시간, 공간, 속도의 제약으로부터 벗어난 탈 영토화된 세상에서 살고 있는 것이다.

네그로폰테의 주장대로 색깔도 무게도 없는 0과 1의 비트로 된 디지털 메시지는 광속으로, 인종과 문화의 차이를 한순간에 뛰어넘어 상대방에게 전달되는 기적을 일으키며 공간의 소멸과 함께 실시간으로 타인과의 새로운 관계를 설정하게 된다. 바로 이런 디지털의 능력으로 우리 사회에서 요구하는 인재상도 변화하게 되었다.

19세기 산업사회에서는 기능공 중심의 블루칼라가 20세기 초기 정보화사회에서는 지식과 기술을 갖춘 고학력자인 화이트칼라가 요구되는 인재상이다. 21세기 지식정보화 사회에서는 직업적 열정과 창의성으로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골드칼라들이 요구되고 있다.

디지털시대와 IT인력수요 전망

인터넷의 발달로 누구나 정보와 지식에 접근할 수 있는 디지털시대에는 학력이 더 이상 능력의 잣대가 되지 못하고, 새로움에 도전하는 열정, 정보활용 능력, 핵심기술이 이 시대를 앞서 나갈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컴퓨터, 인터넷이 우리 생활 속에 익숙해 진지는 그리 오래 되지 않았다. 불과 50년도 되지 않은 기간에 IT산업은 급속한 성장을 이뤄, 현재 신규 고용을 많이 창출하고 있다. '무어의 법칙'에 따르면, 2004년에는 현재 직종의 2배가 새로이 창출될 것으로 전망해 볼 수 있다.

한국정보통신정책연구원 자료에 의하면 오는 2006년까지 IT 분야의 전문인력이 9만9000명 가량 부족할 것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특히, 컴퓨터와 인터넷의 확산으로 IT기술을 겸비한 인력의 수요는 IT산업뿐만 아니라 비 IT산업에서도 많이 필요로 하고 있어 그 수요는 향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하지만 IDC 자료에 의하면, 지난 20년간 연평균 12%의 성장률을 기록해 온 세계 IT산업이 올해는 -2.3%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해 사상 최악의 해가 될 것으로 내다보았다. 또한 향후 이라크전쟁 가능성, 미국경제의 더블딥현상 등의 악재가 지속적으로 존재하고 있어 내년 IT업계 성장률 역시 2%대로 낮아질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이처럼 장밋빛 청사진만을 가지고 있던 IT산업의 거품이 서서

IT산업에서의 업종별 IT전문인력 고용인원과 부족인원



(2002년 6월 현재)

비IT산업에서의 업종별 IT전문인력 고용인원과 부족인원



(2002년 6월 현재)

히 빠지고 있는 실정이다. IT분야의 평균 근속 연수는 3.8년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IT분야의 급속한 변화와 무한경쟁 속에서 얼마나 살아남기 힘든가를 절실히 보여주는 수치이다.

21세기 무한경쟁 시대의 생존전략

첫째, 자기 일에 정열을 쏟아야 한다. 정열 없이는 성취도 없다. 평생직장 개념이 사라져 언제 퇴출될 지 모르지만 자기 일에 정열을 갖고 있는 자에게는 평생직업은 남아 있는 것이다.

둘째, 자기계발을 위한 투자를 게을리 말 것이다. IT분야에서는 하루가 멀다하고 새로운 기술들이 개발되고 있다. 이런 빠른 변화속에서 자칫 자기계발에 게을리 하면 바로 낙오가 되고 만다. 현재 주 트렌드가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그 분야에 필요한 기술과 지식을 한발 앞서 습득하는 자만이 남보다 10배는 먼저 도약할 수 있는 것이다.

현재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21세기 지식정보화 사회에서는 직업적 열정과 창의성으로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디제라티'들이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디제라티는 디지털(Digital)과 지식인(리터라티 : literati)의 합성어이다.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인재상

	산업사회 (19세기)	초기정보화사회 (20세기)	지식정보화 (21세기)
인재상	블루칼라	화이트칼라	골드칼라 (디제라티)
요구사항	근면, 숙련공	지식, 기술, 고학력	직업적 열정, 창의력